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2018년 담양군의회 국외연수]
[2018.11.5.(월) ~ 11.14.(수)]

2018년 담양군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



담 양 군 의 회

목 차

□ 2018년도 담양군의회 국외연수 계획	3
○ 해외연수 일정	4
○ 연 수 자 명단	5
❧ 독일 연수	
○ 국가현황	6
○ 주요방문지 세부연수결과	7
♦ 독일 노인전문요양 시설(Geriatrium Eich) 방문	8
❧ 스위스 연수	
○ 국가현황	13
○ 주요방문지 세부연수결과	15
❧ 이탈리아 연수	
○ 국가현황	19
○ 주요방문지 세부연수결과	20
♦ 몬테로톤도 시청(Comune di Monterotondo) 방문	23

2018년 담양군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

- 선진 외국에 대한 연수 체험기회를 통해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을 배양하고 의원의 발전적이며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능력향상
- 담양군 군정정책의 방향 설정 및 주요시책 수립 등 대응방안 강구와 지역의 세계화·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통해 지역발전 이바지

I 연 수 개 요

- 기 간 : 2018. 11. 5.(월) ~ 11. 14.(수) / 8박10일
- 연수국가 :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 대 상 : 19명(의원 9, 의회사무과 7, 집행부 3)
- 주요 방문지
 - ◆ 기관방문 : 독일 노인복지시설, 이탈리아 몬테로톤도 지방의회
 - ◆ 역사문화자원 : 고성 옛다리, 호엔츨레른 성, 융프라우호, 두오모성당, 미켈란젤로 언덕, 빈사의 사자상, 바티칸 박물관 등
 - ◆ 자연유산 : 검은 숲(슈베르츠발트), 티티제 호수, 라인폭포, 캄파돌리오 언덕, 스펡크스 전망대 만년설 등

II 의정연수 효과

- 제8대의회 개원 의정연수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연구 할 수 있는 기회마련.
-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의정발전에 활용하도록 사전 및 사후 관리 강화
- 국외연수지역의 현황 등 사전 자료습득을 위한 국내·외 문헌과 정보검색을 통해 조사한 자료를 함께 수록
- 의회의 의정활동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우리구의회와의 비교자료로 활용하고 의정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Ⅲ 국외연수 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 요 일 정
1일차 11/5 (월)	담 양 인 천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KE905	05:30 10:30 13:20 17:30	• 담양 집결 후 인천공항 이동 • 인천공항 3층 집결 및 출국수속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독일 프랑크푸르트 향발(12시간) •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착(호텔 투숙 및 휴식)
2일차 11/6 (화)	프랑크푸르트 로덴부르크 원헨	전용차량	전 일	• 독일 사회복지시설 기관방문 • 국민의회가 최초로 열린 파울교회 방문 • 뢰머광장, 대상당, 괴테의 생가(외부) 탐방 • 구시가지, 마르크스 광장과 시청사 방문 • 독일 남부 원헨으로 이동(약2시간 50분) / 호텔투숙 및 휴식
3일차 11/7 (수)	원 헨 뤼 켄 취리히	전용차량	전 일	• 원헨의 마리에나광장 • 침탑이 인상적인 프라우엔 교회 • 글로켄슈필로 유명한 신 시청사 등 관람 • 뤼켄으로 이동(약 2시간소요) • 디즈니랜드성의 모델이 된 노이슈반슈타인성 • 취리히 이동(약3시간 30분) / 호텔투숙 및 휴식
4일차 11/8 (목)	취리히 루체른 베 른 인터라켄	전용차량	전일	• 스위스 관광협회 기관방문 • 루체른 호수, 빈사의 사자상, 카펠교, 구시가지 등 • 베른으로 이동(약 1시간 30분) • 장미정원, 전마대등 관람 • 인터라켄으로 이동(약1시간) / 호텔투숙 및 휴식
5일차 11/9 (금)	인터라켄 밀라노	전용차량	전일	• 인터라켄 오스트역 이동 • 융라우요흐 산악열차 탑승후 설산과 얼음동굴 탐방 • 밀라노로 이동(약 4시간소요) • 두오모 성당, 비토리오 에마누엘레2세 갤러리아 방문 • 호텔투숙 및 휴식
6일차 11/10 (토)	베니스	전용차량	전일	• 베니스로 이동(약 3시간 20분소요) • 산 마르코 광장, 탄식의 다리, 두칼레 궁전 등 문화탐방
7일차 11/11 (일)	베니스 피렌체 로 마	전용차량	전일	• 르네상스가 꽃핀 피렌체 이동(약3시간 40분소요) • 성모마리아성당, 단테의생가, 미켈란젤로 광장 등 탐방 • 로마로 이동(약 3시간 30분 소요) / 호텔투숙 및 휴식
8일차 11/12 (월)	로 마 폼페이 소렌토 나폴리 로 마	전용차량	전일	• 고대의 휴양도시 폼페이로 이동(약 2시간 30분소요) • 폼페이유적지(원형경기장, 마리나게이트 신전 등) 탐방 • 가국의 도시 소렌토 이동(약 40분소요) • 나폴리로 이동하여 산타루치아 항구, 나폴리 경관 감상 • 로마로 이동 / 호텔투숙 및 휴식
9일차 11/13 (화)	로 마	전용차량 KE932	전일 21:45	• 몬테로톤도 시청사 기관방문 • 바티칸박물관, 캄피돌리오 언덕, 트레비 분수등 탐방 • 로마 출발 / 인천국제공항 향발(약 11시간 소요)
10일차 11/14 (수)	인 천 담 양		17:00 22:00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담양도착 후 귀가

Ⅲ 연수참석자 명단

연번	직위	성명	휴대전화	비고
계		19명		
1	의장	김 정 오		의원(9) ※의장, 부의장님 외는 지역구순
2	부의장	정 철 원		
3	의원	김 기 석		
4	의원	이 정 옥		
5	의원	김 현 동		
6	의원	이 규 현		
7	의원	김 성 석		
8	의원	최 용 호		
9	의원	김 미 라		
10	의회사무과장	이 경 호		의회사무과 (7)
11	전문위원	최 연 호		
12	주무관	이 희 형		
13	주무관	임 규 완		
14	주무관	박 효 진		
15	주무관	최 홍 석		
16	주무관	김 태 우		
17	자치행정과장	정 균 태		집행부 (3)
18	농업정책담당	이 승 모		
19	주무관	정 미 경		

IV 연 수 내 용

1 독 일



가. 일반현황

- 독일은 유럽 중부에 위치한 나라로 정식 국가 명칭은 독일 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며, 독일어로는 분데스레푸블리크 도이칠란트(Bundesrepublik Deutschland)라고 한다. 수도는 베를린(Berlin)이다. 독일 인구는 약 8,115만 명이며, 영토는 한반도의 약 1.6배인 35만 7112km²에 달하며, 행정구역은 16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2조 5,000억 유로(Euro)의 경제대국 독일은 폭넓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와 철·강철 제품을 수출한다. 1871년 비스마르크가 통일 독일제국을 건설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많은 영토와 모든 식민지를 잃었다. 히틀러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유발되어 히틀러는 600만 명의 사람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홀로 코스트를 자행했다. 1949년 동서로 분할되었다가 1990년에 통일되었다. 현재 EU 회원국 간의 결속을 통해 서유럽과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나. 의회형태

- 독일의 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되어있으며 임기 4년의 하원(분데스탁)은 598석으로 직접선거(소선거구제)와 정당비례대표제의 혼합 형태로 선출된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의원을 직접 선출할 뿐만 아니라, 지지 정당에 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비례대표제 의원도 선출한다.

- 유권자들은 2개로 나뉜 투표지에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을 각각 찍는다. 각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는 바로 연방의원이 된다. 각 정당은 전국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은 뒤 지역구 당선자 299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 정당이 미리 발표한 후보자 명부 순서에 따라 채운다. 할당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더 많다고 해도 지역구 당선자의 의석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추가 의석이 발생, 전체 정원인 598명을 넘을 수 있다.
-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당의 총리후보가 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가 된다.

다. 주요방문지 세부 연수결과

- 프랑크푸르트 시청사, 뢰머광장
 - 마임강변에 자리잡은 프랑크푸르트 구도심 중앙에 위치한 광장으로 뢰머(Römerberg)는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대관식이 끝난 후 축하연이 열렸던 유서깊은 장소로 중세이래로 600여년간 시청사 건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뢰머는 상인들이 시의회에 이건물을 1405년에 팔았다고 하며 그 이후 시청으로 바뀌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웅장한 석조건물로 시청사와 길드홀을 지었던 유럽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뾰족한 목조건축물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 이날 공식일정으로 프랑크푸르트 의회를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내부 정당선거등의 이유로 방문이 거부 되어서 아쉬움이 있음.



《 프랑크푸르트 시청사 앞 》

o 독일 노인전문요양 시설(Geriatrium Eich)

- 방문일시 : 2018. 11. 6.(화) 14:00
- 대 표 : Hung Soon Holker
- 설립취지 : 노인을 위한 수준 높은 케어를 전문으로 하고 거주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행복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
- 시설현황
 - 개 원 : 2013년 1월
 - 소 재 지 : Gernsheimer Str.47, 67575 Eich
 - 연 락 처 : +49 (0)6246 90882
 - 운영주체 : 반시립 사설 노인시설
 - 운영방법 :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과 비슷함
 - 시설규모 : 정원 30명(60세이상 노인) / 입소 30명
 - 홈페이지 : www.geriatrium.de
- 운영 프로그램
 - 예술과 공예, 바느질
 - 보드 및 카드 게임, 빙고 퀴즈
 - 대체 요법 세션, 감각 인식
 - 실내 및 실외 정원, 매주 꽃 정렬
 - 전문 라이브 가수 및 연예인 방문
 - 미니 버스 여행, 동물원 방문
- 기관방문 간담회 내용
 - 의장님 인사말

☞ 안녕하세요? 담양군의회 의장
김정오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보고자 이번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담양군의회에서도 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케어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비롯한 운영방식과 경영가치 철학을 보고 배우고 우리지역도 노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 시설현황 리플렛 》

하겠습니다. 담양군의회 의원을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총괄관리자 시설현황 설명(휠커)

- ☞ 저는 시설의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휠커입니다. 우선 저희 시설에 방문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나 이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 이후에라도 앞으로 언제든지 더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 ☞ 전체 수용인원은 30명 정도로 책정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30명의 요양원 시설물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환자라고 부르지는 않고 여기 거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심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치매, 뇌졸중 이런 쪽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 ☞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분들은 전부 다 굉장히 높은 경험과 스킬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어느 정도 등급 이상은 돼야만 통과를 해서 여기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루도 멈추지 않는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한국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듯이 다양한 나라에서 자격증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 또 서로간에 교류도 하게 되면서 경험도 서로 나눌 수 있고 해서 지금 이 시설에서 일하고 계시는 간호사 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이 요양원 시설 내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거동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장에다가 도르래 같은 것을 매달아서 일어나시는데 도움을 주는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 ☞ 호이스트라고 하는데요, 일어나는데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셔야 될 때 도르래나 이런 장치들을 해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문제가 없지만 거동을 도와드리는 쪽으로 그런 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 시설의 품질평가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

들을 충족하고 그것에 맞춰서 모든 시설들이 운영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을 케어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시단 분들 등 이런 분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여기에서는 시설을 완비를 하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뭔가를 계속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매니저가 상주를 하면서 하루 종일 여기 같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고 프로그램을 짜주고 또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다른 곳과는 좀 더 특화된 부분이 이 시설은 가지고 있습니다.

☞ 30명 거주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중에 10분은 이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10분은 국민의료공단에서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10분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입소하신 분입니다.

- 질의 및 답변

☞ 이정옥 의원 : 한국의 경우 사실 다인실을 함께 이용하다 보니 여러가지 불편할때가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볼때 여기가 가정적이고요, 그런 면이 있고 또 말씀들어 보니까 레지던스에 거주하면서 친절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팀 인원이나 방은 어떻게 되는지요?

☞ 총괄 관리자 : 개인이 방 하나씩. 1인실이에요. 정부 정책입니다. 한 방에 한 명씩 16평방미터에 1인이 들어갈 수 있는게 규정입니다. 옛날에는 한 방에 여러 명씩 있었는데 그게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해서 일단 무조건 정책상 16평방미터에 1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게 정부방침입니다.

☞ 이정옥 의원 : 저희 한국도 차츰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 차원으로 개선이 되어 수익이 우선되어 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철원부위원장 : 그럼 30명 정원이면 30개실이 있다는 말씀인나요?

☞ 총괄 관리자 : 거주자들을 위해 행복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장비를 갖춘 30개의 침실을 보유하고

365일 2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기석 의원 : 조금 전에 입소하시는 분들의 비용하고 의료보험 공단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운영 자체를 후원금을 받는 제도도 있는지 아니면 관에서 전혀 보조가 없는 건지요?

☞ 총괄 관리자 : 그게 1/3입니다. 지역, 정부인데 그 중에는 후원금도 있고, 일단은 여기에 개인자금으로 들어오면 일주일에 1,300파운드입니다. 1주일에 한화로 170만원 정도 되는 거죠. 한달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68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국가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55%, 지역 의회나,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85%, 그러니까 100% 개인자금,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85%, 그 다음에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55% 이렇게 됩니다.

☞ 김미라 의원 : 주변 주택가에 이런 시설이 올 적에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는습니까?

☞ 총괄 관리자 : 시설물 들어올 때 몇집이 반대했고 몇집은 괜찮다고 했다고 하네요. 주민들 2/3 정도는 거부하는 데 왜 그러냐면 시설물을 확장하면서 햇빛을 차단하게 되고 앞의 VIEW가 깎이고 방문객 등 주차에 불편하다 보니 그런 이의를 제기가 많이 있었으나 결국 법정 소송으로 가서 승소했습니다.

☞ 김정오 의장 : 이런 민원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네요. 좋은건 서로 유치하려 하고 약간의 피해가 된다 싶으면..... 사람사는데는 다 똑같나 봅니다.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시설현황 설명 〉



〈 시설현황 설명 〉



〈 운영시설 현장설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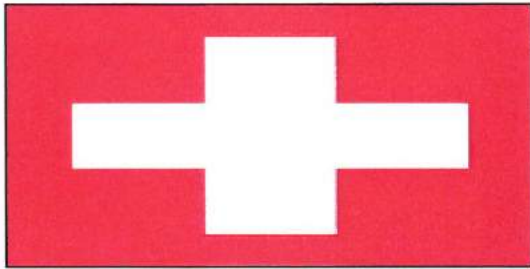


〈 기념품 전달 〉



〈 독일 노인복지시설 단체사진 촬영 〉

2 스위스



가. 일반현황

- 중부유럽에 있는 연방제 공화국. 옆동네에 비해 영세중립국으로 유명하다. 헌법상의 수도는 따로 없지만 연방의회와 국제기구가 많이 위치한 베른이 사실상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대 도시는 취리히.[7] 지정학적 의미로 분류할 때는 중부유럽으로, 정치경제적 의미로 분류할 때는 종종 서유럽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 유럽연합(EU) 국가는 아니다.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가입국이지만, EFTA에 가입한 다른 국가(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함께 EU에 가입을 안하기로 유명하다. EU 가입신청서 광속으로 승인이 날 만한 국가이지만, 영세중립국이라는 명목으로 EU 가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스위스의 보호국인 리히텐슈타인도 마찬가지로 스위스의 정책을 따른다는 이유로 영세중립국을 유지하고 있다. EFTA에 가입되어 있어 EU 가입국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으며, 또한 생겐조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주변국에서 스위스로 넘어갈 때에는 여권이 필요하지 않다. 더불어 WTO와 OECD의 가입국이다. 영세중립을 이유로 오랫동안 UN에도 가입하지 않다가 2002년에야 가입했다
- 주요언어 : 다양한 인종과 주변국의 영향으로 독일어 75%, 프랑스어 20%, 이탈리아어 9% 사용된다.
- 기 후 : 스위스의 기후는 유럽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부 대서양, 동부 내륙, 북부 극지 및 남부 지중해 등 유럽의 4대 기류의 영향을 두루 받고 있다. 이 같은 외부 요인과 함께 산지에서 고원에 이르는 지형의 급격한 변화 등 지역에 따라 날씨와 기온의 차가 큰 나라이다.

나. 주요방문지 세부 연수결과

0 스위스 베른 구시가지

- 스위스의 수도이자 베른주의 주도(州都)인 베른에 조성된 중세의 구시가지를 가리킨다. 12세기에 아레강(Aare River)으로 둘러싸인 언덕 위에 건설되어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온 곳으로 지금까지도 중세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베른의 구시가지 구역은 다른 곳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에 걸쳐 일관되고 치밀한 도시계획에 따라 변경·확장되었다. 구시가지의 중심을 이루는 슈피탈거리(Spitalgasse)를 비롯하여 마르크트거리(Marktgasse)·크람거리(Kramgasse)·포스트거리(Postgasse)·게레호티호카이츠거리(Gerechtigkeitsgasse)·윙케른거리(Jückerngasse)·게르베른거리(Gerberngasse) 등이 조성되었으며, 베렌광장(Bärenplatz)을 비롯하여 시청광장(Rathausplatz)·부벤베르크광장(Bubenberplatz)·로이페르광장(Läufferplatz) 등이 곳곳에 있다. 중세에 조성된 마을들은 대부분 18세기에 개축되었지만 본래의 특징을 잘 보존하였으며, 이후에 추가된 현대의 도시 기능과 조화를 이루어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스위스 인터라켄 관광형식 - 융프라우 가는길 》

0 융프라우요호

- 아름다운 설경으로 잘 알려진 알프스 산맥의 고봉 융프라우(4,158m)는 산악인뿐 아니라 여행자에게도 매력적인 장소다. 융프라우의 하이라이트는 융프라우와 뮌헨 두 봉우리 사이에 위치한 융프라우요호 전망대로, 명물 톱니바퀴 열차로 오를 수 있어 근성이 없는 여행자라도 고산 지대의 짜릿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열차가 운행하는 융프라우요호 전망대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철도역이기도 하다. 높이가 자그마치 3,454m에 달하는 이곳까지 열차가 운행한 지도 100년이 넘었다고 하니 감탄이 절로 나온다.



《 융프라우에 대한 설명 》

- 아름다운 설경으로 잘 알려진 알프스 산맥의 고봉 융프라우(4,158m)는 산악인뿐 아니라 여행자에게도 매력적인 장소다. 융프라우의 하이라이트는 융프라우와 뮌히 두 봉우리 사이에 위치한 융프라우요흐 전망대로, 명물 톱니바퀴 열차로 오를 수 있어 근성이 없는 여행자라도 고산 지대



《 융프라우 산악열차 》

- 의 짜릿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열차가 운행하는 융프라우요흐 전망대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철도역이기도 하다. 높이가 자그마치 3,454m에 달하는 이곳까지 열차가 운행한 지도 100년이 넘었다고 하니 감탄이 절로 나온다.
- 융프라우요흐 전망대에는 다양한 시설이 있지만 열차가 도착하는 역 플랫폼에서 리프트를 타고 오르는 스팅크스 전망동은 융프라우요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다. 융프라우요흐 전망대에서 가장 높은 스팅크스 전망동에서 실내와 실외에 마련된 전망 공간에서 황홀한 설원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다.



《 융프라우 전망대에서 》

- ♦ 이외에 유럽 최정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반짝이는 눈 속의 얼음 궁전, 유럽에서 가장 긴 빙하인 알레치 빙하 등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알레치 빙하의 일부인 융프라우 설원에서는 스키나 스노보드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융프라우 설원 반대편에는 야외 전망 테라스인 플라토가 있어 스텝크스 전망동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알프스 산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철도 운행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얼음 터널 알파인 센세이션도 볼만하며, 이 터널을 통과하면 다양한 얼음 조형물을 볼 수 있는 지하 얼음 궁전으로 이어진다.
- ♦ 융프라우요흐 전망대를 전부 둘러보려면 2시간은 잡아야 하며, 희박한 공기에 대비해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은 금물이다. 이상을 느낀다면 전망대 1층의 의무실로 가 도움을 받도록 한다. 방한복과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도 필수 준비물이다.



《 융프라우 설산에서 》

- 단언컨대 스위스 융프라우는 세계의 알짜 명소다. 여행자들의 로망인 런던, 파리에 이어 누구나 유럽여행 중에 꼭 한 번쯤은 들려봤음직한 단골 방문지이며, 또 귀에 박힐 정도로 익숙해진 곳이다. 사실 융프라우는 알려진 걸모습보다는 속살이 더 웅골지고 매혹적이다. ‘신이 빚어낸 알프스의 보석’이라는 칭송을 받는 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
- 융프라우의 높이는 4,158m다. 아이거, 뢰히와 더불어 융프라우 지역의 3대 봉우리 중 최고 형님뻘이지만, 이름에 담긴 뜻은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처녀’다. 그러나 수줍은 처녀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날은 그리 많지 않다. 산 밑 인터라켄의 날씨가 화창하더라도 융프라우는 구름에 만년설로 덮인 알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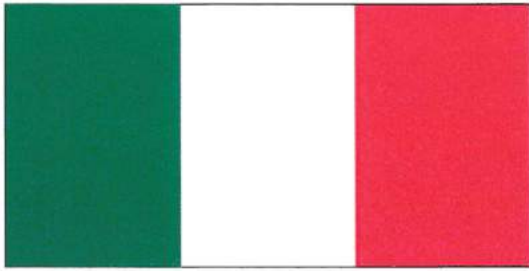


《 융프라우 얼음동굴 》



《 융프라우 해빙 3,160M 》

3 이탈리아



가. 일반현황

- 수 도 : 로마(인구 : 280만명)
- 주요언어 : 이탈리아어 94.1%, 사르데냐어 2.7%, 라티니아어 1.3%, 기타 1.9%로 구성
- 기 후 : 지중해성 기후 (연평균 15.6℃)
- 면 적 : 301천 km² (한반도의 1.5배)
- 인 구 : 5,721만명
- 주요도시 : 밀라노, 나폴리, 토리노, 피렌체, 베네치아
- 종 교 : 카톨릭 (98%) (국교 : 없음)
- 기 후 : 이탈리아의 기후는 고온 건조 저온 다습한 지중해성 기후로서 로마의 연평균 기후는 섭씨 15.3도이며 연 교차가 섭씨 18.1도, 연 강수량은 880mm이다. 남부와 섬은 해양성 기후를 보이고 있어 올리브와 감귤 재배에 적합하다.
- 산 업 : 농업은 올리브, 포도, 토마토, 밀, 쌀 등의 생산으로 발달하였으며, 포도주의 생산은 프랑스와 맞붙는 편이다. 공업은 북부의 밀라노, 토리노, 제노바 등지를 중심으로 기계, 자동차, 섬유 공업이 발달하였다.
-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대륙과 유럽을 연결하는 지중해를 향해 남동 방향으로 1,200km로 뻗어 시칠리아 섬과 사르데냐 섬을 포함한 남부유럽의 반도국가로서 정식 명칭은 이탈리아 공화국(Republic of Italy)이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상업을 중심으로 도시 문명이 발달하였다. 북쪽으로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가, 동쪽으로 아드리아 해를 사이에 발칸 반도와 남쪽에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북아프리카와 마주하고 있다. 많은 섬과 이탈리아의 아펜니노 산맥이 뻗어 형성된 장화 모양의 반도와 섬으로 구성되었다.

나. 주요방문지 세부 연수결과

○ 밀라노 대성당

- 두오모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성당을 뜻한다 한다. 시내 한 북판에 우뚝 솟아 있는 섬세하고 화려한 밀라노 대성당은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고딕 양식의 걸작이고 밀라노의 상징이다. 이것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성당에 이어 세계 두번째의 규모를 자랑한다. 마치 숲을 연상시키는 전형적인 고딕 양식에 135개나 되는 탑



하나 하나 마다 성자 조각품을 올려 놓아 그 화려함 그 자체이다.

○ 산 마르코 광장



- 베네치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열주로 가득한 건물이 광장을 'ㄷ'자로 둘러싸고 있어 광장은 하나의 거대한 홀처럼 보이며, 나폴레옹은 이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홀)이라 불렀다. 광장의 가운데에는 베네치아의 수호신인 날개 달린 사자상과 성테오도르상이 있고 동쪽으로 산 마르코 대성당, 두칼레 궁전이 있

다. 광장을 둘러싼 건물은 16세기 경 정부청사로 건립된 것으로 나폴레옹의 날개(알라 나폴레오니카)라고도 불리며, 현재는 박물관을 비롯해 오래된 카페, 살롱들이 들어서 있다. 그중 1720년에 개업한 카페 플로리안은 과거 바이런, 괴테, 바그너 등이 자주 들렀던 곳으로 유명하다.

0 탄식의다리

- 그저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곳에 존재하는 가장 작고 어두운 탄식의다리... 17세기에 만들어진 탄식의다리는 그 이름에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베니스의 여러 다리들은 섬들과 도시의 여러 지역들



〈 탄식의 다리 〉

을 이어주는데 탄식의 다리 역시 총독부가 있던 두칼레 궁과 피리지오니 누오베라는 감옥을 연결하는 다리라 한다. 두칼레 궁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죄수들이 이 다리를 건너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의미에서 한숨을 내쉬었다하여 '탄식의 다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이자 바람둥이였던 카사노바가 투옥되었다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카사노바 만이 탈옥을 하여 더 유명해진 곳이라 한다.

0 베네치아의 명물 '곤돌라'

- 베네치아의 명물이 되어버린 작은배 곤돌라!! 수상도시 베네치아의 굽이굽이 골목길을 곤돌라를 타고 돌아다녀 보아야 하지만 일정상 그리 넉넉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아 바다위에 떠 있는 곤돌라를 구경만 해야 했다. 또한 곤돌라를 타고



〈 곤돌라 〉

베네치아 곳곳을 도는 요금은 우리 돈 65천원으로 조금은 비싼 가격이었다.

○ 고대의 휴양도시 ‘폼페이’

- 79년 8월 24일 정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연안에 우뚝 솟아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돌연 폭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검은 구름이 분출되면서 화산이 분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화산은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화산암을 뿜어 내면서 인근 도시로 쏟아져내렸다.



〈 장해만 남아있는 폼페이 〉



〈 장해만 남아있는 폼페이 〉

- 나폴리 남동부에 자리잡고 있던 폼페이는 이 화산 폭발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소멸한 도시 중 하나다. 하늘에서 비오듯 쏟아져내리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은 순식간에 폼페이를 뒤덮어버렸다. 운 좋게 도망친 사람도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늦은 사람들은 지상을 뒤덮은 고온 가스와 열구름에 질식사하거나 뜨거운 열에 타 죽었다. 이 폭발로 당시 폼페이 인구의 약 10퍼센트인 약 2,000명이 도시와 운명을 함께 했다고 한다.



〈 폼페이 유적지에서..... 〉

다. 몬테로톤도 시청(Comune di Monterotondo)

- 방문일시 : 2018. 11. 13.(화) 12:00 ~ 13:20
- 담당자 : Sig. Valenti (발렌티 박사)
- 시장 : mauro alessandri
- 부시장 : luigi cavalli
- 도시개요
 - ◆ 총면적 : 40.94km²
 - ◆ 인구수 : 40,810명(2017년 기준)
- 몬테로톤도 시청은 상기 도시의 정 중앙의 고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는 구도시와 신도시로 구분 되어 있어서 구도시는 행정도시이며 신도시는 공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 몬테로톤도 시청은 이태리 라지오주의 소속으로 로마와는 23km 떨어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위성 도시이다.
- 지형상으로 165m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 특이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 도시이다.
- 기관 방문 간담회 내용

◆ 의장님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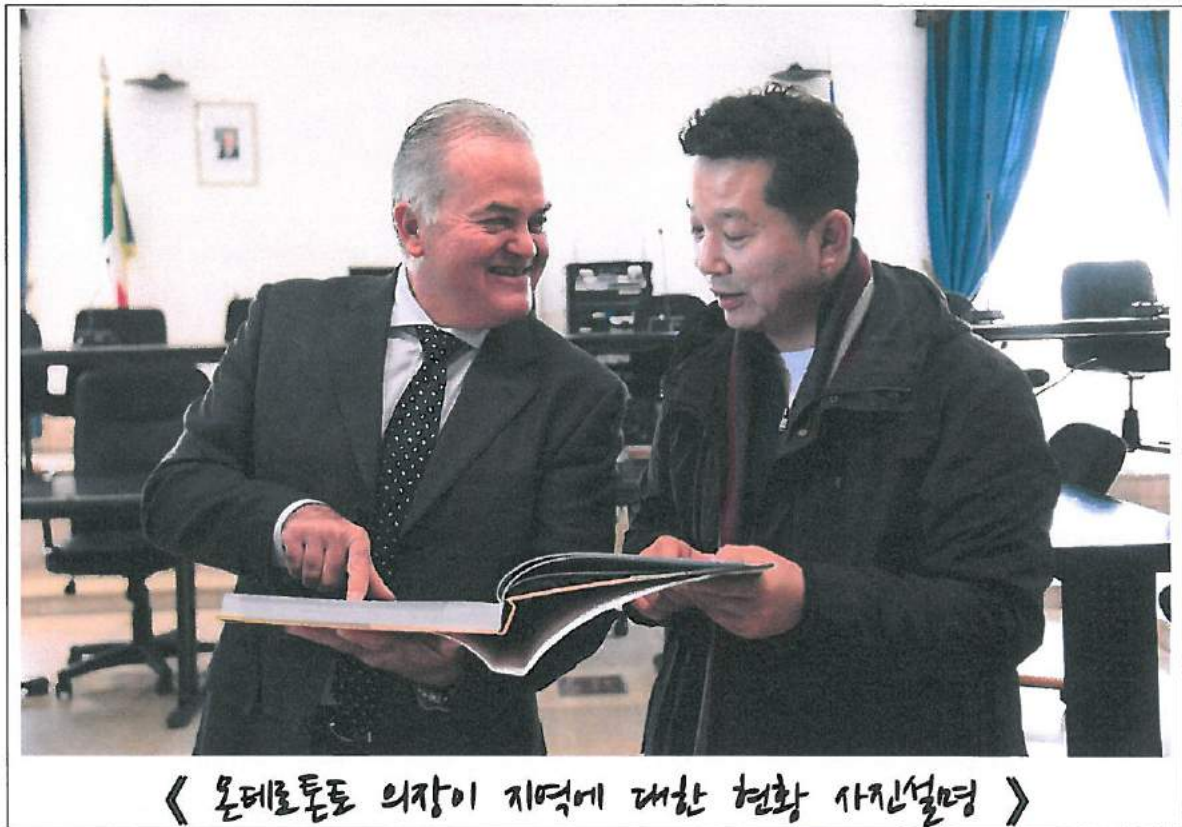
☞ 안녕하세요? 담양군의회 의장 김정오 입니다.

지혜와 예술의 도시 로마에 위치한 코무네 디 몬테로톤도시청을 방문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담양군의회 의원님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양군의회는 대한민국 전라남도에 위치한 22개 시군 의회 중 하나로써 담양군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부 통제 및 감시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탈리아 지방도시의 운영방식에 관한 전문적인 마인드를 배워 선진 의회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에 이번 방문을 통해 양 지방도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담양군의회 의원들을 맞이해 주시어 알차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회가 되신다면 담양군의회에도 꼭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몬테로톤토 의장이 지역에 대한 현황 사진설명 》

• 관계자 이탈리아 의회제도 설명

- ☞ 이탈리아는 내각책임제 국가로 의회 형태로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양원 및 주대표의 합동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법률선포권, 의회해산권, 총리 및 각료 임명권, 조약비준권, 국군통수권 등을 행사하여 전형적인 내각제 국가의 대통령보다 많은 권한을 보유하면서 의회와 정부 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이탈리아는 과반수 확보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다당제 정치체제로서 내각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연합 소속 정당들간의 타협과 합의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 내 최대 계파의 지도자가 총리로 임명되어 내각수반이자 각료회의의장으로서 정부정책의 총체적 노선을 결정하고 정치와 행정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 관계자 시청내 지역 박물관 소개

- ☞ 로마 사람들 이전에 에트루스키(Etruschi)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시대 때 여기 몬테로톤토에 그 에트루스키들이 살았는데 그

때 시대를 상상하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 ☞ 지금 보신 바로 그 지역으로 몬테로톤도를 지도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강을 하나 보셨을 거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테베레강이라고 합니다. 그 강줄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 로마가 생기기 이전에 바로 이곳에 에트루스키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있는 방식입니다.
- ☞ 아까 보셨듯이 기원전 9세기, 10세기까지는 이 지역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바로 무덤. 무덤을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사람을 화장해 실었습니다.
- ☞ 보통 형태는 헬멧처럼 그런 형태를 했고 어떤 데는 철 같은 걸로 장식을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발견되는 것은 헬멧 모양 그런 모양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 ☞ 이것은 여성들의 무덤이었는데, 뒤집어진 형태. 여성들의 무덤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저런 식으로 뒤집어진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 ☞ 로마 근처에 몬테로톤도가 있는데 그 에트루스키라는 민족이 로마 시대 이전에 북쪽까지 확장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파란 부분이 바로 테베레강, 로마에 가면 흐르고 있는 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위까지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트루스키라는 민족이 살았고 여기는 싸빈이라는 민족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이, 이게 다 로마북쪽에 있는 지역들인데 다들 이 지역에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 ☞ 그래서 두 명이 자기소개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조각상을 보셨잖아요. 그 사람의 역사를 말로 해 준 건데 아까 있었던 여자의 모습은 포도주의 신이 있었어요, 그 때 당시에. 그 신의 신전을 관리하는 여자였고, 남자의 조각상은 바로 이렇게 이런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입니다.
- ☞ 그래서 아까 보셨던 조각상의 남자 토기장이 만들었던 작품들이 죽나오고 있고 지금 이 테크닉이 굉장히 특별한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오븐에 굽는 과정에서 까맣게 변할 수 있도록 화학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써서 만든 토기입니다. 그래서 토기인데 메탈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테크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질의 및 답변

☞ 김정오 의장 :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 Sig. Valenti : 몬테로톤도 시에서 직접운영하는 곳은 병원, 박물관 2개소,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박물관과 도서관이 있는 건축물은 몬테로톤도에 있는 건축물 중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 1,400년대 지어진 것이고 이 1,400년 지어질 적에 이 건축물은 오르시니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던 궁입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가 학교가 있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여러 가지 급수에 모든 교과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노인을 수용하는 양로원, 장애인 수용하는 그런 수용시설 같은 곳 이런 것이 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정오 의장 : 몬테로톤도 시의회 의원은 어떻게 선출이 되고 의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Sig. Valenti : 시에서 운영되는 구조를 보면 시의원은 투표로 인해 당선이 되어 지금 여러분 들이 있는 시 의회에서 당선된 25명의 시의원들 간 투표를 통하여 의장이 되고 의장은 시행하는 기구를 가지고 있는 집행력의 최고 의원이 되면서 6명을 추천하여 시행하는 6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구조로 봤을 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의회 민주주의 구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규현 의원 : 이 도시의 주요정책의 관심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Sig. Valenti : 도시정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담당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정부이고 이것과 관련된 것, 이제 도시정부를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도시정부가 운영되는 것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이 가추어지기 때

문에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이야기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 최용호 의원 : 인구 4만이면 저희 지역과 비슷한데 저희는 농업을
주를 이루어 생계를 하는데 주로 무슨 생산활동으로
주업을 하고 있나요?

☞ Sig. Valenti : 몬테로톤도 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생산분야
와 관련된 것인데요. 일단은 몬테로톤도라는 이 도
시가 전통적으로 보면 벽돌 굽는 것이 주업이었다
합니다. 시내 오면서 보니까 큰 굴뚝 보셨잖아요.
과거에 상당히 활성화된 산업으로 벽돌을 생산하는
공장이 활성화 되었는데 지금 벽돌 굽는 공장은 한
개 남았고 그 외에 보면 특별하게 주 산업은 없고
여기저기 여러 가지에서 생산업으로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몬테로톤도가 두 도시로 나뉘었는데 밑
에 있는 동네, 위에 동네, 구도시 신도시로 나뉘는
데 생산활동은 주로 밑에서 저 만난지역인 구도시
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전에 저와 만난 데를
보면 정확하게 전문성을 가진 공업인은 없는데 여
러 가지를 생산하는 밑 동네 박물관에서 일하는 직
업도 중요직업으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합니다.

☞ 김정오 의장 : 총 예산지원이 있는지? 있다면 지원금액은 얼마고
중앙정부에서는 얼마나 지원되고 지방에서는 얼마
나 투입이 되나요?

☞ Sig. Valenti :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업무는 하나고 행정집행은 시 에서 중앙정
부지원을 받아 지방정부에서는 연간 6천만 유료가
시 재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주로 건축물 복원
등 도시재생 사업비로 사용 되고 있으며, 전체
50%이상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고 나머지 50%는
중지방정부에서도 내려오고 시 자체 내에서 세금

으로도 해서 충원이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오 의장 : 도하고 중앙하고 준비하고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네요.

☞ 정철원 부의장 : 복지, 교육, 시설이라든가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는 어느 쪽에 많이 지원되는지?

☞ Sig. Valenti : 운영되는 돈이 가장 많은게 공무원 월급주는 게 절반, 건축물이라든지 구조, 행정 운영되는 것에 들어가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복지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시의회에서는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정오 의장 :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 소득원이 농업입니다.

☞ Sig. Valenti : 여기는 가장 큰 공업이라고 봐야하는데 농업은 거의 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업도시라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면 약 6천명된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영국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안 하고 로먼 위성도시라고 해서 주로 위탁받은 공업용품을 생산하여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성석 의원 : 시에서 법을 제정해서 통과할 수 있는지?

☞ Sig. Valenti : 법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법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고 법을 제정하는 것은 권한이 없고 시가 운영되는데 규칙이라든지 이런 완와법은 제정하고 있습니다.

☞ 김기석 의원 : 1년에 며칠간 의회를 운영며, 봉급은 얼마를 받고 회기운영은 몇일이나 운영하는지?

☞ Sig. Valenti :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달에 한번 있고 한 달에 한번이니까 12번 운영하고. 한 달에 한번씩 있는 게 그게 보통 연 이틀 정도 되는데 월급은 의원이고 뭐고 없답니다. 월급은 없고 참가할 때마다 출석수당이 있는데 동전 하나 준다고 하는데 동전 값어치가 얼마냐, 25유로. 그러니까 의원

이 여기 와서 시의원이 와서 한달에 벌어가는 돈 많이 벌어가야 150유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 직업이 있고 재능을 기부하는 식으로. 의원으로 받는 돈은 150유로 정도 됩니다.

☞ 김미라 의원 : 그럼 의원은 재능기부를 위해 하나요?

☞ Sig. Valenti : 의원을 하는 것이 의원직 자체가 직업이 아니고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의정단이라고 만들어놓은 그 사람들이 다른 일로, 즉 이것만 주로 하는 사람들이 월급이라고 받아 가는 것이 연 2만 유로 정도 됩니다.

☞ 이정옥 의원 : 그러면 아까 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 책임진다고 했는데 출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직장의 여성은 출산휴가가 있는지?

☞ Sig. Valenti : 출산휴가라든지 있는 경우는 시하고는 전혀 상관 없고 중앙정부 지원이 있는데 출산하고 이후 5개월 정도 지나 일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 김정오 의장 :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의 담양군의회의원들에게 반갑게 대해주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의 담양군 수준과 비슷한 지역에 오니 더 정겹고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합니다.



《 몬테로토노 의원 및 관계자와 단체사진 》



〈 몬테로토노 시청사 정문 〉



〈 몬테로토노 시청사 정문 〉



〈 시의원들과 환담 〉



〈 절의 무덤 〉



〈 기념품 전달 〉



〈 양국 의원들끼리 단체사진 〉